ISSUE & PITCH

5 Feb. 2026

김연미 전기전자 | ym.kim@daolfn.com

DAOL 다올투자증권

전기전자 (Overweight)

무라타·이비덴 실적 코멘트 및 업황 점검

Issue

금번 무라타·이비덴 실적발표를 통해 MLCC와 FC-BGA 업황 동향 및 26~27년 수요/공급 방향성 점검

Pitch

MLCC는 서버향 CAPA 잠식으로 범용까지 타이트한 수급이 전이되는 흐름이며, FC-BGA는 이비덴의 대규모 CAPEX 공시에도 불구하고 27년까지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대형주에서는 MLCC와 FC-BGA를 모두 커버하는 삼성전기 Top-Pick, FC-BGA 밸류체인은 대덕전자, 기가비스 선호종목 유지**

Rationale

MLCC: 26년 수요 둔화 우려보다 공급 쇼티지에 주목할 필요

- 무라타의 당분기(FY3Q25) 영업이익은 379억엔(-50%, 이하 YoY)으로 컨센서스(826억엔) 대비 큰 폭 하회. 통신/무선 분야 일회성 요인(영업권 손상차손) 영향으로, 컴포넌트는 견조한 실적 유지. 서버용 MLCC 수요 강세로 계절적 비수기에도 높은 가동률 (90~95%) 지속
- 서버용 MLCC는 고사양 특성상 CAPA 잠식 유발. 공급사 CAPA 배분이 서버 중심으로 재편되며 범용(IT/컨슈머) 공급도 감소 → 수요처 전반으로 공급제약 확대. 수요 대응에 따라 재고 축적이 원활치 않아 안전재고가 얇아진 상태이며, 연간 증설이 ~10% 수준에 그치는 만큼 수급 타이트 장기화 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 메모리 가격 폭등에 따른 IT 세트 수요 둔화 우려가 있으나, 수요 감소보다는 전체적인 공급제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

FC-BGA: 이비덴의 대규모 투자공시가 말해주는 것들

- 이비덴의 당분기(FY3Q25) 영업이익은 120억엔(+88%)으로 컨센서스(136억엔)를 소폭 하회. FC-BGA 수요 둔화가 아닌, 오노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등 개별 요인으로 해석
- 실적발표 이후 공시된 대규모 설비투자 공시(약 5,000억엔 규모)는 AI 서버 중심의 고사양 기판 수요에 대한 확신 및 본격적인 FC-BGA 투자 사이클 재개의 신호탄. 이비덴의 FC-BGA 검사/수리장비 벤더인 기가비스 수혜 기대. 27년 이후까지 기가비스의 중장기 수주&실적 가시성이 확보됐다는 점이 긍정적. 통상 FC-BGA 투자 1조원 중 검사/수리장비 비중 5~10% 수준(1조원당 최소 500억원 이상). 이비덴은 기가비스 M/S가 특히 높은 고객사라는 점에서 밸류체인 중 최대 수혜 종목으로 판단

Ⅰ. MLCC : 26년 수요 둔화 우려보다 공급 쇼티지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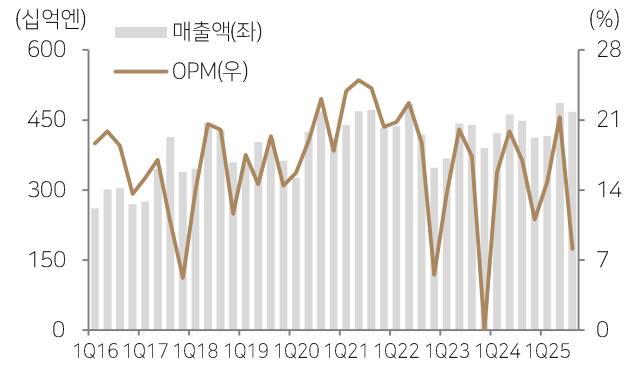
무라타 FY3Q25 실적 Review

무라타의 금번 FY3Q25 실적은 매출액 4,675억엔(+4%, 이하 YoY), 영업이익 379억엔(-50%)으로 컨센서스(영업이익 826억엔) 대비 큰 폭 하회했다. 하회 배경은 SAW 필터 관련 영업권 손상차손 일회성 요인(498억엔)으로, 이를 제거 시 OP 컨센서스를 6% 상회하는 수준이다.

컴포넌트 사업부 매출액은 2,955억엔(+12%), 영업이익 764억엔(OPM 26%)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Capacitor 매출액도 YoY +12% 증가하며,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서버용 제품 수요 호조 및 재고 축적 수요로 인해 높은 가동률(90~95%)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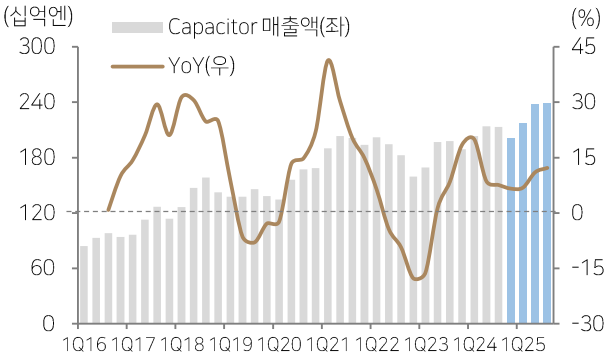
FY25 매출액 가이던스는 직전 대비 10% 상향한 1조 8,000억엔으로, 컨센서스(1조 7,639억엔)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견조한 서버 출하 및 스마트폰/PC/xEV 등 전방 세트 수요 전망치를 상향한 영향이다.

Fig. 1: 무라타 전사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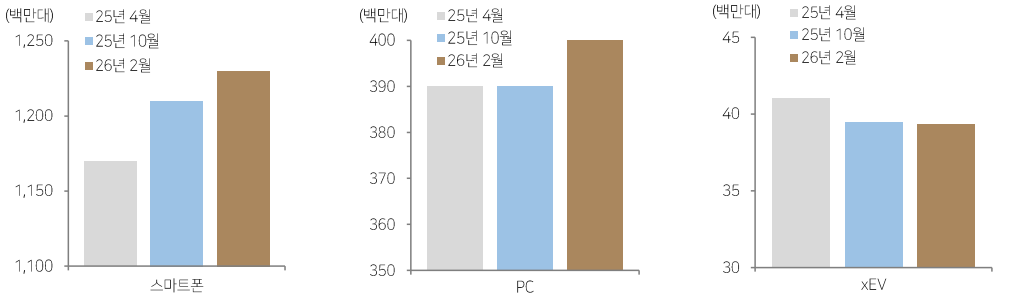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Fig. 2: 무라타 Capacitor 매출액 추이



Source: 무라타, 다올투자증권

Fig. 3: 무라타 FY25 (25년 4월 ~ 26년 3월) 전방 세트 수요 전망치 변화



(백만대)	FY24	FY25			비교	
	실제치	25년 4월	25년 10월	26년 2월 (현재)	전년대비	직전 추정치 대비
스마트폰	1,170	1,170	1,210	1,230	5%	2%
5G 비중	66.7%	69.2%	66.1%	65.6%	-	-
완성차	89.5	88.5	90.3	91.3	2%	1%
xEV 비중	39%	46.4%	43.7%	43.1%	-	-
PC	380	390	390	400	5%	3%
AI 서버 비중	12.0%	17.0%	13.1%	13.1%	-	유지

Source: 무라타, 다올투자증권

MLCC 업황 체크포인트

① 변수는 수요가 아닌 공급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PC/스마트폰 등 IT 세트 전반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는 구간이다. MLCC 산업에서도 IT 컨슈머용 MLCC 수요 약세에 따른 물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금번 무라타 실적을 통해 확인된 포인트는, 26년 MLCC 업황을 결정하는 것은 IT용 수요 둔화가 아닌 업체들의 공급 대응력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버용 수요가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을 넘어 CAPA 잠식을 유발하며, 수요처 전반의 공급 제약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당분기 Capacitor BB ratio 상승(1.12)을 서버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이 유의미하다. **업계 전반의 서버 중심 CAPA 할당 전략으로 인해 IT/컨슈머용 등의 볼륨존에서도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현상**이다. 실제로 회사는 26년에도 공급 부족 가능성을 인정하며 타이트한 수급의 지속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MLCC 업황은 IT용 수요둔화보다 전체적인 공급제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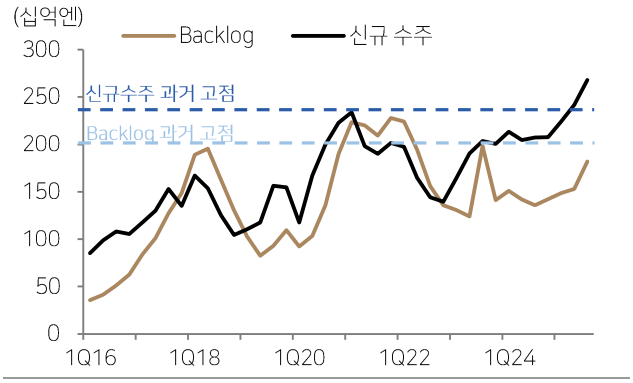
② 가격 인상 가능성

26년 MLCC 가격 방향성은 재고 부족 + 공급 쇼티지 강도가 결정할 전망이다. MLCC는 통상적으로 재비딩 때마다 제품 단가를 인하하는 구조이며, 무라타는 FY26 진입 이후 전반적인 가격 인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업계 전반의 재고 레벨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일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신규 주문 대응으로 인해 재고 축적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이는 **수요가 강한 구간에서 공급사가 재고를 목표 수준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업계 전반적으로 안전재고가 줄어드는 국면**임을 시사한다.

무라타가 FY4Q에도 90~95% 고가동을 유지하며 AI 서버향 재고를 늘리겠다고 밝힌 점은, 서버향 CAPA 배분이 확대될수록 범용(IT/컨슈머) 공급에도 타이트함이 전이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라타가 연간 약 10% 수준의 증설을 유지하되 급격한 대규모 증산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의 AI 서버용 수요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10% 증설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무라타, 삼성전기 등 상위업체 중심으로 LTA(장기공급계약) 논의가 진전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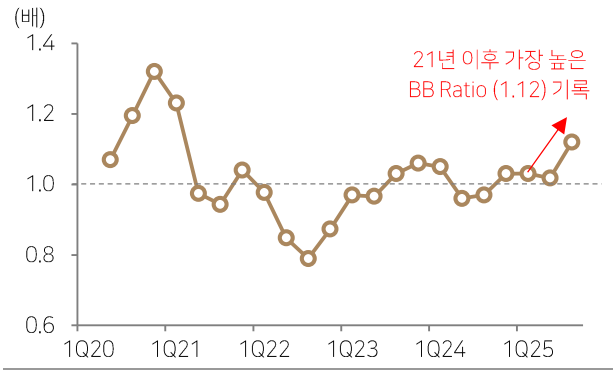
무라타는 현재까지 가격 인상은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시황에 따라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이트한 수급이 장기화될 경우 MLCC 가격 인상 사이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Fig. 4: Murata Capacitor 백로그 및 신규수주 추이



Source: 무라타, 다올투자증권

Fig. 5: Murata Capacitor BB Ratio



Source: 무라타, 다올투자증권

Fig. 6: 무라타 주요 실적발표 Comment 종합

▶ 수요 전망

≫ 스마트폰

FY25 세트 출하 전망 +2% 상향

→ 배경: 프리미엄 제품군 및 중화권 중심 수요 호조, 로우엔드도 견조

≫ 완성차

FY25 세트 출하 전망 +1% 상향

→ 배경: 중화권 중심으로 생산대수 견조

≫ PC

FY25 세트 출하 전망 +2% 상향

→ 배경: 교체수요 영향

≫ AI 서버

반기마다 업데이트하므로 금번 실적은 전망치 조정 X

단, 당분기에도 AI 서버 및 AI 데이터센터향 부품 수요 호조 지속

▶ 재고

환율영향 제외 시 당분기 재고는 QoQ -10 억엔 감소

일부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는 상황

→ 연간으로 매출액과 생산액이 거의 균형을 이루면서 재고를 충분히 쌓지 못함

차분기(FY4Q25)에도 재고는 더 소진되는 방향일 것

▶ 수주

전사 BB Ratio 는 1.07, Capacitor 는 1.12 수준

당분기 Capacitor 수주액은 2,681 억엔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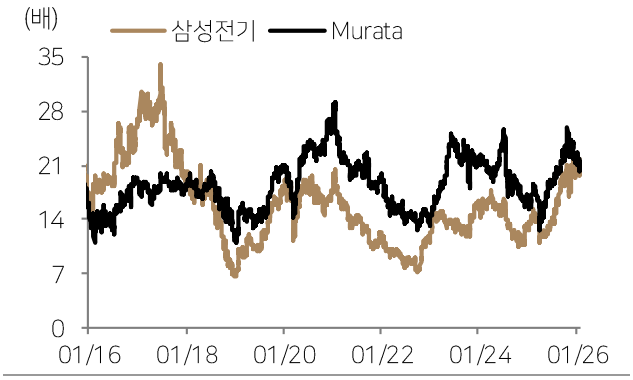
Source: 무라타, 다올투자증권

Fig. 7: 국내외 주요 MLCC 업체 실적 및 Valuation

(십억원, 백만달러, %, 배)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24년	25E	26E	24년/25년 YoY	25년/26년 YoY	24년	25E	26E	24년/25년 YoY	25년/26년 YoY	25E P/E	26E P/E	25E P/B	26E P/B
국내															
삼성전기	22,968	10,294	11,314	12,482	9.9	10.3	735	913	1,298	24.2	42.2	32.7	21.4	2.5	2.3
아모텍	149	229	257	283	11.9	10.4	-24	7	17	흑자전환	151.9	12.5	6.9	0.9	0.8
삼화콘덴서	351	295	298	340	0.9	14.1	18	13	22	(27.1)	69.2	16.0	11.3	1.2	1.1
해외															
무라타	41,813	11,445	11,396	12,395	(0.4)	8.8	1,836	1,897	2,376	3.3	25.2	26.0	21.0	2.3	2.1
TDK	27,610	14,474	15,346	16,141	6.0	5.2	1,542	1,659	1,927	7.6	16.2	22.0	19.0	2.2	2.0
Yageo	17,524	3,788	4,158	4,857	9.8	16.8	728	917	1,172	26.0	27.7	23.6	18.5	2.2	2.8
다이요 유덴	2,849	2,242	2,299	2,464	2.5	7.2	69	126	202	82.7	60.8	37.5	20.9	1.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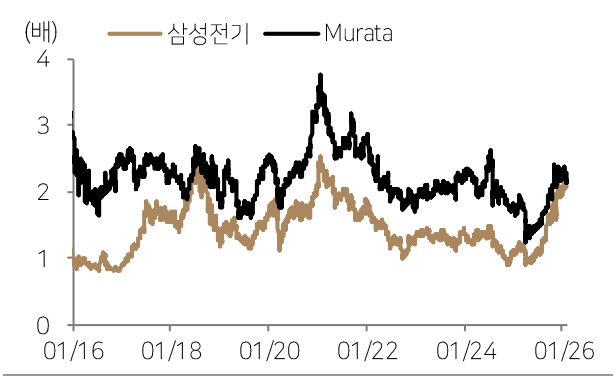
Source: QuantiWis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추정
Note: 삼성전기는 다올투자증권 추정치

Fig. 8: 무라타 & 삼성전기 P/E 추이 비교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Fig. 9: 무라타 & 삼성전기 P/B 추이 비교



Source: 무라타, 다올투자증권

무라타(6981 jp) FY3Q25 어닝콜 주요 Q&A 정리

Q. (MLCC) 가동률 및 재고 추이, 가격 동향

» 가동률

- 당분기(FY3Q)와 차분기(FY4Q) 모두 가동률 90~95% 수준 유지
- FY4Q 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과거에는 수요 감소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는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 발생

→ 가동률 90~95% 수준 유지, 가능하다면 95%에 가까운 가동률 확보를 목표

» 재고

- 당사도 재고 수준을 늘리려고 하나, 신규 주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재고 레벨은 예상대비 늘지 못함
- AI 서버용 수요 대응 과정에서 생산 부담(=CAPA 잠식)이 커지는 상황
- IT 용 컨슈머 수요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생기는 CAPA 여력을 활용해 AI 서버 재고 늘릴 계획

» 가격

- 자동차 및 기타 영역에서 가격 인하 압력 존재
- FY26으로 진입하면서 가격 인하 압력은 완화될 전망

Q. (MLCC) 세그먼트별 수요 양극화 심화. PC/스마트폰 약세가 전체 수급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 PC/스마트폰에서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로우엔드 중심으로 빠질 것
- 따라서 당사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음
- 반면 AI 서버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 및 대응 규모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

Q. (MLCC) 과거 17~18 년과 같은 가격 인상 Cycle 가능성?
- 가격 인상은 현재로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시황에 따라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
- 현 시점에서는 납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둘 것
- 수요가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격 인상 조치도 불가능하진 않음

Q. (전사) 26 년 실적 관련 코멘트
- 25~27 년 중기 경영 계획에 맞춰 전사 경영 추진
- 26 년은 데이터센터향 전원(PSU) 공급이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되는 시기
-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

Q. (MLCC) 메모리 가격 상승이 MLCC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향후 스마트폰/PC/자동차에서 고객사별로 영향의 편차가 다를 것
- 과거에도 이런 이슈에 민감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군이 상이
- 단, 당사의 주요(대형) 고객사들은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
- 26 년에도 MLCC 생산능력이 부족하며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 있음

Q. (전사) 차분기(FY4Q) 세그먼트별 매출 전망
-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중국 자율주행 및 EV 가 매우 큰 시장을 형성 중
- 해당 시장을 구성하는 SDV 향 센서류 등이 매출에 기여 중
- 컴퓨팅 부문에서는 데이터센터향 MLCC 가 중심이며, 4 분기 및 내년에도 매우 강한 수요 동향 지속

Q. (전사) 최근 금속 가격 상승 및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이 미칠 영향
- 재고 보유 방식 변화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중
- 고객사별로 대응 방식이 다르긴 하나, 큰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중
- 최근 금속 가격 상승분은 일부 제품 중심으로 향후 가격 정책에 반영 여부를 검토 중

Q. (MLCC) 수요처별 BB Ratio 및 수주 동향
- 당분기 수주 호조를 AI 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MLCC 업계 전반의 생산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
- 현재 AI 서버 수요가 매우 강하며, 업체별 대응능력이 훨씬 중요한 상황
- 당사는 볼륨존(일반/컨슈머용 영역)도 대응하겠다는 방침
- 현재 볼륨존에서도 수주가 일부 증가하는 중

Q. (MLCC) 26 년 생산능력 운영 방향. 연간 10% 증설 유지 여부. IT 용 → 서버용 라인 전환 유연성?

- 급격한 대규모 증산은 없을 것.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속도로 공급능력 올리는 방향
- 라인 효율화 등을 포함해 전체 CAPA 를 확대하는 방식
- AI 서버용 MLCC 는 고신뢰성/고적층/대면적이 요구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IT 용 라인의 일부 전환 가능

Q. (컴포넌트) 26 년 수익성 개선 방안

- 당사는 매년 약 10%씩 생산능력 확대
- 26~28 년은 지금까지 투자해온 고정비를 본격적으로 회수하는 타이밍
- 과거에는 일정 수준 여유 CAPA 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풀가동에 진입할 것
- AI 서버를 포함해 전체적인 수요가 확대되는 구간
- 고정비 부담 희석되며 이익률 끌어올릴 것
- AI 서버 제품은 생산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생산성 및 수율 개선 효과도 함께 반영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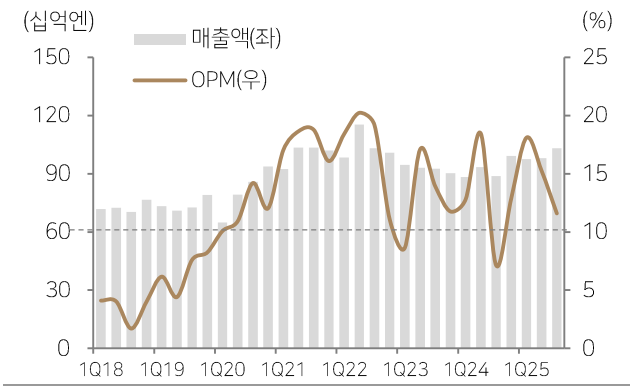
Ⅱ. FC-BGA: 이비덴의 대규모 투자공시가 말해주는 것들

이비덴 FY3Q25 실적 Review

이비덴의 금번 FY3Q25 실적은 매출액 1,031억엔(+16%, 이하 YoY), 영업이익 120억엔(+88%)으로 컨센서스(영업이익 136억엔)를 소폭 하회했다. 패키지기판 사업이 포함된 Electronics 사업부는 매출액 584억엔(+24%), 영업이익 120억엔 (+296%), OPM 13%으로, 기존 OPM 컨센서스 16%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FY25 가이던스는 매출액 4,200억엔, 영업이익 610억엔으로 직전 가이던스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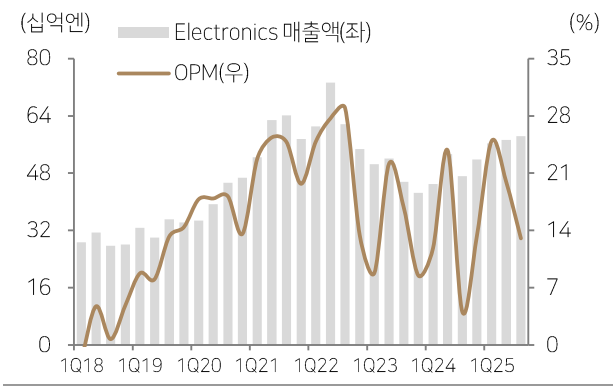
당분기 실적 부진의 배경은 증설에 따른 비용 반영 및 일시적 수율/고정비 부담으로 추정한다. 특히 Phs1 증설을 마친 Ono 공장이 25년 10월부터 가동을 개시하며 감가상각비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며, 신규 라인의 초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이 OPM을 제한한 것으로 예상한다. 즉 단기 실적 부진은 이비덴 고유의 비용 구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Fig. 10: 이비덴 실적 추이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Fig. 11: 이비덴 Electronics 실적 추이



Source: 이비덴, 다올투자증권

이비덴 5,000억엔 대규모 투자공시

이비덴은 금번 실적발표와 동시에 고성능 IC 패키지기판 설비투자 결정을 공시했다.

- 목적: AI 서버용 고성능 IC 패키지기판 생산 CAPA 확장
- 기간: FY26 ~ FY28 (=27년 4월 ~ 29년 3월)
- 규모: 약 5,000억엔 (한화 약 4.65조원)
- 대상: 가마공장, 오노공장
- 계획: 1단계 2,200억엔

→ 가마공장(CELL6) 중심 설비투자

- FY27부터 양산 예정

3년간 약 5,000억엔(약 4.6조원) 투자로, 기존 CapEx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큰 규모이다. AI 서버 중심의 고사양 패키지 수요 확대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업황이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FC-BGA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에 바인딩 되어 가동률 및 물량 보전 조건 등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사 LOI 및 장기 수요 가시성이 확보**됐다는 해석이다. 본격적인 FC-BGA 투자 사이클 재개 신호탄이다.

Fig. 12: 이비덴 고성능 IC 패키지기판 설비투자 공시 (26/02/03)

Notice Regarding Capital Investment for High-Performance IC Package Substrates (Acquisition of Fixed Assets)

IBIDEN CO., LTD. (hereinafter "the Company") hereby announc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at a meeting held today, resolved to approve a capital investment plan for its electronics business, amounting to approximately 500 billion yen over the three-year period from fiscal year 2026 to fiscal year 2028,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fiscal year 2030 targets disclosed in May last year. As the first phase of this plan, the Company hereby announces our resolution to implement additional capital investment, primarily for the existing Gama Plant (Cell6),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production capacity of high-performance IC package substrates, mainly for high-performance servers.

1. Overview of the Capital Investment Plan

1. Purpose : Expansion of Production Capacity for High-Performance IC Package Substrates (for AI Servers and High-performance Servers)
2. Planned Period : Fiscal Year 2026 to Fiscal Year 2028 (three-year period)
3. Total Investment : Approximately 500 billion yen
4. Target : 1. Gama Plant (3-200 Gama-cho, Ogaki City, Gifu Prefecture) and other existing plants, including those overseas
   2. Ono Plant (237-1 Shimoiso, Ono-cho, Ibi-gun, Gifu Prefecture) and other existing plants, including those overseas
5. Details of the Capital Investment Plan:

<Place>	Gama Plant and other existing plants, including those overseas
<Investment Amount>	Approximately 220 billion yen (planned)
<Operation Start>	Sequential operation and planned commencement of mass production from fiscal year 2027
<Production Capacity>	Through this investment, the Company will increase production capacity to meet the demand for high-performance IC package substrates from fiscal year 2027 onwards

2. Future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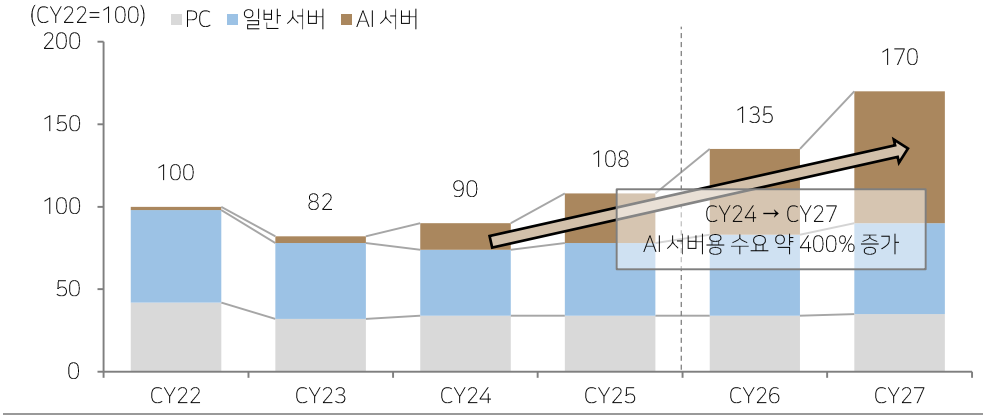
The impact of this investment on the Company's consolidated financial results for the current fiscal year is expected to be immaterial.

Source: 이비덴, 다올투자증권

시장이 우려할 수 있는 지점은 FC-BGA 공급과잉이다. 다만, **이비덴이 제시하는 수요 궤적과 지금까지 발표된 FC-BGA 생산량 확대 목표를 감안 시, 과거와 같은 공급과잉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비덴의 수요 전망(25년 10월 업데이트)에 따르면 **AI 서버용 수요는 CY24 대비 CY27에 약 +400% 증가하는 반면, AI 서버용 FC-BGA 생산 능력은 CY27까지 CY24 대비 150%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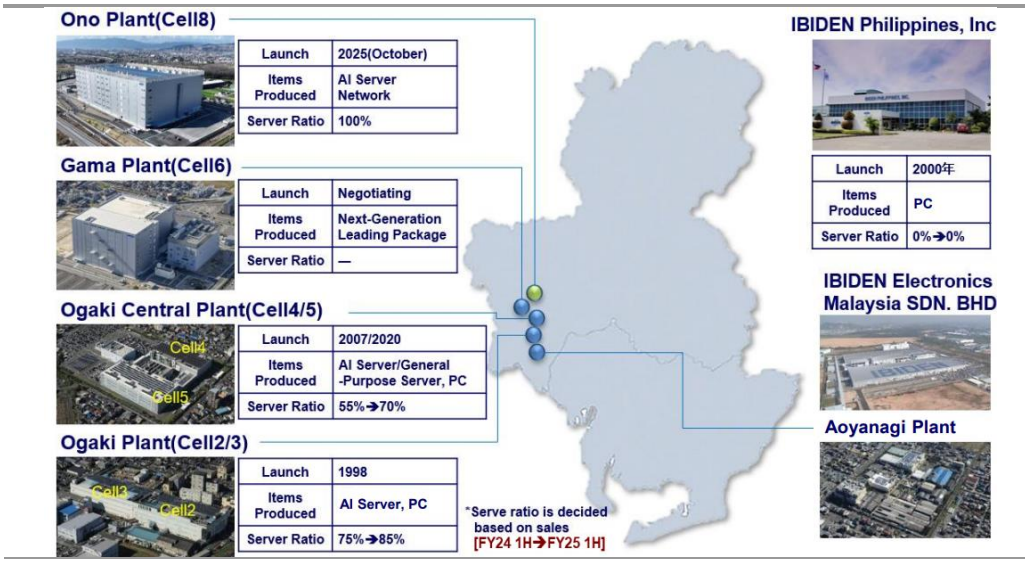
금번 투자공시에 따르면 1단계 투자는 가마 공장 중심의 설비 투자로, FY27부터 순차 가동을 시작해 27년 이후의 중장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27년까지 추가되는 물량은 기존대로 오노 공장 중심의 AI 서버 생산량 증가이며, 여전히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확대 속도를 상회하는 구간임이 명확하다.

Fig. 13: 이비덴 SAP 공정 수요 전망



Source: 이비덴, 다올투자증권
Note1: SAP(Semi-Additive Process)이란, FC-BGA 등 고사양 패키지 기판에 사용하는 회로 형성 공정을 의미
Note2: FY2Q25 실적발표(25/10/31) 업데이트 기준

Fig. 14: 이비덴 공장 현황



Source: 이비덴,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HOLD	SELL
BUY : 88.7%	HOLD : 11.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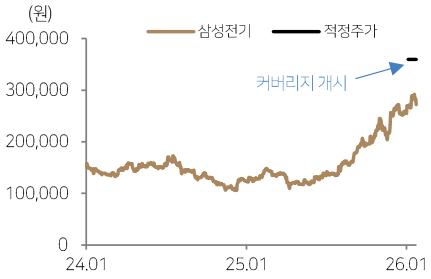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최근 2년간 투자등급 및 적정주가 변경내용

삼성전기(009150)

일자		2026.01.06
투자의견	커버리지	BUY
적정주가	개시	3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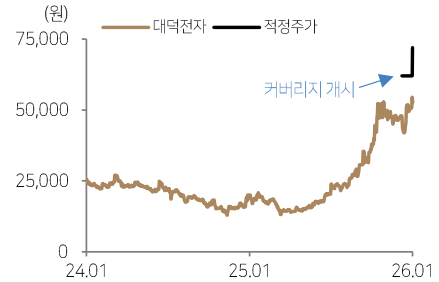


적정주가 대비 실제주가 괴리율 (%)	일자	적정주가	평균주가	최고가	평균주가 괴리율(%)	최고가 괴리율(%)
	2026.01.06	360,000				

* 괴리율 적용 기간: 최근 2년내 적정주가 변경일로부터 최근 종가 산출일(2026년 2월 4일)
** 괴리율 적용 산식: (실제주가 - 적정주가) / 적정주가

대덕전자(353200)

일자		2026.01.06	2026.01.30
투자의견	커버리지	BUY	BUY
적정주가	개시	62,000원	72,000원



적정주가 대비 실제주가 괴리율 (%)	일자	적정주가	평균주가	최고가	평균주가 괴리율(%)	최고가 괴리율(%)
	2026.01.06	62,000				
	2026.01.30	72,000				

* 괴리율 적용 기간: 최근 2년내 적정주가 변경일로부터 최근 종가 산출일(2026년 2월 4일)
** 괴리율 적용 산식: (실제주가 - 적정주가) / 적정주가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